

세계기도정보

[미국] 공화당 의원들, 이슬람 국가들의 기독교 박해 규탄 결의안 발의
 [방글라데시] 군 훈련기 학교 추락사고 사망자 31명으로 늘어
 [파키스탄] 종교 소수자 위한 공무원 통합 프로그램 출범
 [호주] 기독교 감소 추세지만 새로운 기회도 열리고 있어
 [이란] 교회, 박해 속에서도 여성들 중심의 가정교회로 성장
 [파나마] 복음주의연맹, '가족, 하나님의 디자인' 메가 축제 개최
 [호주] 기독교 인권 단체, 성소수자 정책 인용했다는 이유로 차별 조사 받아
 [튀르키예] 말라티아 사건 순교자의 딸 미하엘 게스케 체류 허가 거부
 [부탄] 기독교인들, 억압 속에서 조용히 신앙 지켜
 [러시아] 2025년 상반기 '불법 선교 활동' 혐의로 기독교인 등 최소 34건 기소
 [아프리카] 사헬 한복판에서 복음과 기도로 믿음의 사람들 세우는 선교사



2025. 7

멕시코에서

선교후원

현황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정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김 성 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바다를 넘어..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확증을 구하며.

7월 2일 화요일, 페루에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이다. 오늘은 자차를 이용해 베라크루스를 거쳐, 치아파스 그리고 메리다로 이어지는 먼 길을 떠난다. 950km 달려 베라크루스에 도착했다. 지쳐있는 나를 위해 메리다에서 미겔 목사가 와 있다. 그가 말한다: “목사님, 여기서부터는 제가 운전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쉬세요.” 그날 현지 목회자들과 모임을 하고 다음 날 800km를 달려 치아파스로 갔다.

성경으로 제자 훈련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훈련하여 그들이 선교적 목사가 되고 선교적 교회를 하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왔다. 8월 페루 사역을 마치고 막으로 부르심과 관련된 모든 가르치는 사역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멕시코에서 가장 외진 지역인 치아파스에서부터 4년에 걸쳐 현지 교회와 이제까지 각 지역에 세워진 목회자 그리고 그들의 교회 그리고 준비전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어린이 및 성인 전도 집회를 동시에 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3~4회, 2027년부터는 거의 매달 집회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기간 나는 끊임없이 지역 교회에 전도자를 배출하고 전도되어온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생각이다.

7월 5일 토요일, 50여 명의 교사들과 4명의 목사들이 치아파스 팔렝게에 모였다. 이들은 우리가 가르친 것을 자신의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는 이들에게 나의 소망과 생각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말한다: “내년 1월에 이곳 치아파스의 4개 지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의 첫 시작이 진행될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년 1월에 1천 명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증표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4년 동안 10만 명 이상이 주께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물결이 치아파스에서부터 멕시코 전체로 퍼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십만 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대답한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가능합니다.” 이 일이 현지 교회 사역이 되어야 하기에,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 만약 이 일이 당신께로부터 온 일이라면, 현지 교회가 이 일에 기쁘게 참여하게 하옵소서.” 나의 이야기를 들은 메리다 교회가 이 일에 기쁘게 참여하겠다고 응답한다.

귀티 아니면 불쌍티?

해발 고도 3700미터에 있는 후앙까벨리카, 영하 1~2도의 기온이 결코 추운 날씨가 아니었음에도, 가져 간 옷을 아무리 꺼입어도 땀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이길 수 없었다.

6월 22일 주일, 내가 떠나기 전 인근 3개 교회가 함께 모여 연합예배를 드렸다. 오늘 오전 설교를 끝으로 나는 이제 고산 지대에서 사역을 마치고 13시간 동안 꼬불꼬불한 안데스 산길을 뒤로하고 페루의 수도인 리마로 떠나야 한다. 육체의 지침과 추위로 인해 양복을 입지 못하고, 경량 패딩과 현지인들이 준 목도리를 착용하고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선포했다.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손에 헌금을 쥐여 준다. 금액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들의 사랑을 느끼며, 이들과 나는 마지막 사진을 찍었다.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던 한 목사님이 나에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주며, 앞으로 이 재킷을 꼭 입고 설교를 해 주면, 자기에게 영광이겠다고 말한다. 몇 번을 거절했지만, 그의 정성을 생각해 재킷을 받았다.

이번 페루 사역 내내 나를 향한 현지인들의 헌금이 끊이지 않았다.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시계를 벗어 주더니, 이곳은 옷과 알파카 털로 만든 목도리 그리고 장갑을 나에게 준다.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번에는 참 이상하지? 현지인들로부터 헌금이 끊이지 않네. 사실 이 재킷은 내가 아닌 그분이 더 필요할 텐데..”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말한다: “참 많이도 불쌍하게 보였나 보네...” “이 사람이 뭐라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귀티가 나는데, 내가 현지인들에게 그렇게 불쌍하게 보였다고?”

유리로 만들어진 집

6월 23일 월요일, 이번 한 주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현지 장로교 총회로 모이는 주간이다. 특별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총회에 참석하는 교단 리더들의 영성을 위한 강의가 3일 동안 진행된다. 나는 3일 동안 세미나 및 목요일 아침 큐티를 인도하게 되었다.

정글- 안데스 산악- 도심 지역을 다니며, 나는 이곳 현지 장로교단 대부분의 리더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간단한 현지 방언으로 서로 인사를 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교단 임원들이 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어디를 다니시든지 그곳 소식이 저희에게 전해집니다. 저희가 먹는 것들을 함께 먹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지역은 저희들도 쉽지 않거든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내가 먹는 것과 자는 것 뿐만 아니라,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나의 모든 일정 그리고 어떤 때는 함께 나와 잠을 자는 현지인들을 통해 육체의 한계로 공공거리며 잠을 청하는 나의 신음도 이들은 다 듣고 알고 있었다. 이들이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께서 한국인으로 최초로 저희 총회에서 3일 동안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게 되어 저희가 영광입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집에 목사만 사는 것이 아니었다. 유리로 만들어진 집에 선교사인 나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난 1년 동안 이곳에서 다녔던 모든 장소와 기억들이 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이제 8월이면 마지막으로 페루에 들어간다. 지난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난 무엇을 했을까? 총회장을 비롯해 3명의 목회자가 이제 매일 개인 큐티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 이 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7월 기도제목:

1.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있을 페루 마지막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정이 1년 동안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깊이 심기도록.
2. 8월 1일 멕시코 메리다 미겔 목사의 교회에서 내년 1월에 있을 전도 집회 실습이 이루어질 때,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어린이와 어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3. 9월부터 코스타리카 비라인 행복한 교회 건축이 시작될 텐데,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며,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4. 아내와 팀원들 그리고 나의 체력을 주께서 지켜 주시길.